

종합·해설

여수박람회 성공 보인다

SOC 사업비 등 내년 정부예산 당초보다 크게 늘어

조직위, 남해안 6개 국립대와 관·학·연 협약식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보다 크게 늘어 행사 준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회 랜드마크인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어 핵심 인프라인 종합레저타운 조성 사업도 가시화돼 대회 성공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9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1조1천억 원대이던 여수세계박람회 SOC 예산이 최근 기획재정부 최종 편성(안)에서 1조5천6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업비는 3천 850억 원으로 책정돼 박람회 총사업비도 당초 2조399억 원에서 2조7천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는 도로 등 SOC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 여수~순천 국도 17호선은 248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전주~광양 구간은 당초 838억 원에서 2천738억 원으로, 목포~광양은 1천115억 원에서 2천315억 원으로 늘었다. 우주~덕양 구간은 490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여수신단진 입도로는 1천억 원에서 1천70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백야도 일대 50만 m²(약 15만 평)에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한다. 주요 시설은 문도 1004실, 컨벤션센터, 빌라 10채, 범선이벤트 호텔, 마리나센터, 전망타워, 옥외스포츠시설 등이다.

남해안 대학들도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탠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여수시는 29일 여수박람회홍보관에서 남해안 인근 경상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남대, 한국해양대 등 6개 국립대와 관·학·연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순신 광장과 연계해 친수시설인 여수 구항 2단계 정비공사를 2011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이를 시설의 조기 건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 관련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일대를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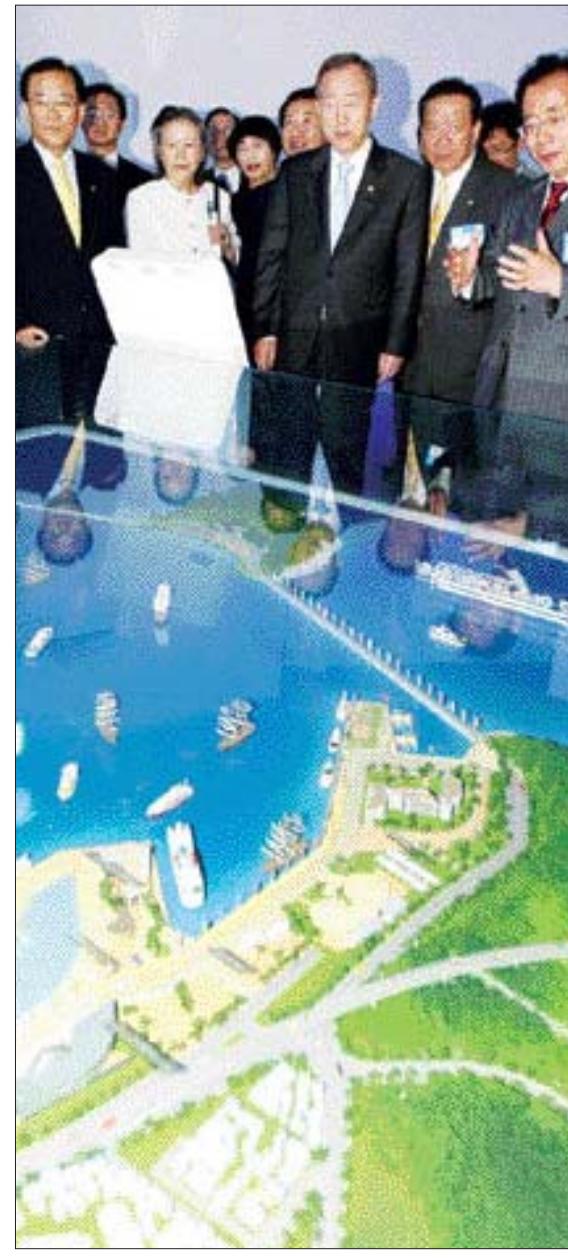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핵심인프라 가운데

하나인 숙박 인프라 확충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25일 여수시청에서 「대체명재산사업과 '백야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체명재산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수

▲야간조명시설 ▲친수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SOC 기반 조성사업 등 대회 개최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12일 여수엑스포 홍보관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광주일보 자료사진〉)



“표결권 침해” “표결권 포기”

현재 미디어법 적법성 놓고 재격돌

개정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적법성을 놓고 현법재판소에서 재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전 현재 대심판정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두 번째 공개변론이 열려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가 적법했는지,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법의 투표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한 표결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이 충돌하게 됐다.

먼저 김희숙 재판관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국회의장 측의 주장은 언급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투표제도의 시행세칙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시행세칙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행세칙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야당 의원 측 대리인은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로 포기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고 포기한 적도 없다”며 “국회의 단일 회의체라 의견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과

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 의원 측

대리인은 “(야당 의원들이) 심의

표결권을 가진 (한나라당) 의원

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했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방해해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투표방해 행위가 언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야당 측은 “신문법 표결 당시에는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 투표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의장 측은 “신문법 등 미디어법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표결까지 방해행위가 계속됐다”고 항변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투표제의 시행세칙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시행세칙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행세칙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공현 재판관도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후 대리투표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을 짚으며 해결책이 있는지 물었고, 국회의장 측은

“지문인식시스템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논의됐지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차 이산가족 상봉… 다시 눈물바다된 금강산



2차 추석 이산가족 상봉 첫 날인 29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측 최고령자 김유중 할머니(100세·맨왼쪽)가 북측의 딸 리혜경(75세)씨를 만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www.nanplus.co.kr

한국의 시간 5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5분의 기적'

당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심장마비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

HeartPlus입니다.

나눌은 "마음"입니다!
피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합니다.
나눌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입문의 1577-8515

nanplus 주 | 나플테크

58년만에 할머니 된 딸 만난 100세 어머니 말없이 눈물만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 2회차 행사가 시작된 29일 금강산은 또 한 번 눈물바다였다.

남북 이산가족 431명은 이날 육로로 방북,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북측 상봉단 99명과 눈물속에 재회했다.

올해 만 100세로 이번 행사 최고령자인 김유중 할머니는 북측 샛새 딸 리혜경(75)씨를 만나 3분여간 딸의 얼굴을 말없이 비비며 울먹였고, 혜경씨는 “엄마, 울지마세요”라며 눈물을 닦아줬다. 김 할머니는 58년 전인 1951년 경기여고 1학년이던 혜경씨와 이별했다.

이번 상봉행사의 유일한 ‘부부상봉’ 대상인 남측 아내 장정교(82)씨와 북의 남편 조준현(81)씨도 이날 59년만에 재회했다.

아내 장씨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다가 내가 시부모님도 다 모시고, 잘 모셨다고 상장까지 받았어요”라고 소식을 전했고, 로씨는 “시부모도 다 모셔주고, 네가.”라며 울먹였다. 장씨는 혼자서 딸 선자(63), 아들 영식(60)씨를 키웠고 남편 로씨는 북에서 재혼해 7남매를 냈다.

이번 상봉행사에선 국군출신 북측 상봉단 3명과 남측 가족의 만남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한국전쟁 당시 모 사단에 소속됐던 석영순(78)씨는 남측 동생 태순(74), 창순(65)씨와, 8사단 민간보급대 출신의 박준식(85)씨는 남측의 아들 삼학(67), 이학(64)씨와 각각 만났다.

또 아버지를 대신해 국군으로 징집됐던 리윤영(74)씨는 남측 동생 찬영(71), 대영(67), 진영(65)씨와 상봉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기간 국군으로 징집돼 전쟁터에 나갔다가 가족과 헤어졌지만 남측에선 모두 전사자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국군포로’로 분류되지 않았다.

석영순씨는 1950년 8월 동네 청년 10여명과 함께 국군으로 징집돼 한 사단에 배치됐으며 국군본부는 이듬해인 1951년 가족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석씨가 징집 3개월만인 1950년 10월 18일 전사했다고 전했다.

동생 장순씨는 “형이 소속된 사단은 6.25 팔공산 전투에서 전멸당해 했다고 들었다”며 “1997년 육군본부

부에 위폐 신청을 해서 국립묘지에도 봉안하고 제사도 지냈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상봉에서 석영순씨는 동생의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를 지내면 되나”라며 크게 웃었다.

또 리윤영씨는 1·4후퇴 때 서울 신당동 집에서 아버지 대신 국군에 징집됐다가 가족과 헤어졌다.

리씨의 남쪽 동생 찬영씨는 “동생

들이 전부 어려 피난은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징집대상이 된 아버지 대신 국군으로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다”며 “죽었다고 생각해서 호적 정리도 끝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찬영씨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1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전하자, 윤영씨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윤영씨는 이날 북한군 훈장 11개를 들고 나와 “북에 정착한 뒤 열심히 일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동생들을 안심시켰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30일 개별상봉과 외외상봉을 하며 다음달 1일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다시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